산업재해 예방을 향한 연대의 약속 제17회 2025 산업보건학술제

지난 11월 26일(수), 대한산업보건협회 본부 오송 사옥에서 '2025 산업보건학술제'가 열렸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산업보건학술제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발전과 제도 개선,
안전보건 활동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학문과 현장 실무의 통합적 접근을 모색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글 김효정 **사진** 박찬혁

2025 산업보건학술제, 안전보건 연구·현장 경험 공유의 장

대한산업보건협회 보건안전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학술제는 산업보건 전문가와 사업장 안전보건 업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연구성과 및 우수사례 발표, 이상지질혈증 검사 주기 단축의 타당성과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 등이 이어지며, 업계 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1부(10시~12시 30분)에서는 연구성과 발표대회와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2층 교육장에서는 한국산업보건학회 하권철 회장이 좌장을 맡아 연구성과 발표를 이끌어갔다. 대한산업보건협회 본부 차세대TFT 김나예 선임과장은 '여름철 실내 고열 작업장의 노출 특성 및 관리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를 발표하며, 온열질환 취약 노동자에 대한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신한대학교 안하림은 '기온 변화와 대기오염물질 농도 상호 작용 분석'을 통해 기후·대기질·건강 간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세종지역본부 산업위생국 이나영 차장은 '건설업 현장 근로자의 고온 노출과 전신피로와의 연관성'을 주제로 발표했고, 용인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의 김동영 학생과 근로복지공단 최성원 직업환경연구원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1층 대강의실에서는 가천대학교 함승헌 교수의 진행으로 우수사례 발표가 시작되었다. SK에코플랜트 이은재 프로는

철도 노동자의 안전 보건 전략을 공유하며 스마트 비콘을 활용한 유해가스 감지시스템과 위치관제 감지시스템을 소개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지역본부 산업위생국 이상윤 선임과장은 '특별관리물질(TCE) 및 소음 노출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사례'를 발표하며, 인식 개선과 공학적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이유택, 현대트랜시스 박래성, 자화전자 엄석현 등이 각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보건 활동과 실천 경험을 공유했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뇌심혈관 질환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

2부(14시~15시 40분) 개회식에는 대한산업보건협회 백헌기 회장,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연창석 지청장,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박승현 원장, 한국산업보건학회 하권철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백헌기 회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 보건의 사회적 책임 주체인 노사정, 학계, 전문가를 비롯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산업보건 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활발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어 "산업보건학술제를 통해 산업보건 분야의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산업보건 전문가들의 침묵과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연창석 지청장은 축사에서 "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

학술제를 통해 산업보건
분야의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 산업보건
전문가들의 침묵과 교류 확대

정책 및 예방 감독 기능 강화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차관급 격상과 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 증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물론이고, 사업주, 노동자, 전문기관이 함께 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현 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배달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심야 노동을 위한 과로를 줄이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장시간 노동이 이상지질혈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노동력을 가진 사람 한 명이 소중한 국가의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노동력 보호의 국가적 중요성을 언급했다.

하권철 회장은 "뇌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업무상 질병은 장시간 노동, 고온, 환경, 유행자 노출 등 여러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노동자의 생명에 위험이 되고 있다"며 "뇌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시상식은 우수사례 발표대회와 연구성과 발표대회에서

수상한 수상자들이 호명되며 단상 앞에 서게 되었다. SK에코플랜트의 이은재,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지역본부의 이상윤, 현대트랜시스 박래성, 자화전자 엄석현, 네패스 청주2캠퍼스 송필규, 대한산업보건협회 본부 김나예, 신한대학교 안하림,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세종지역본부 이나영, 용인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김동영,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 최성원 발표자 등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검사 주기 단축부터 소통 기반 건강관리까지, 산업보건 해법 모색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구정완 교수의 진행으로 시작된 심포지엄에서는 예방 중심의 산업보건 관리 체계가 논의의 핵심이 되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보건안전연구원 조기홍 실장은 '이상지질혈증 검사 주기 단축의 필요성'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뇌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 요소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건강 관리와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해 4년 주기로 시행되던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2년 주기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김은아 과장이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 과장은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한 열쇠는 더 좋은 건강진단 기술, 특별한 신약, 고가의 진단 검사 도입 등이 아니라, 기본적인 예방 활동을 시스템에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노동자와 의료진이 쌍방향 소통을 통해 노동자 스스로 건강을 개선했다는 성취감을 주는 제도의 변화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마지막 순서로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정책과 진영훈 사무관,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이상엽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윤진하 교수가 참여한 패널 토론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참가자들의 질의응답을 끝으로 학술제는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산업보건 분야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산업보건학술제를 사업장 노사 및 정부, 학계, 산업보건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다.